

100년 전 고려인들, 독립 염원 ‘삼월일일’ 창간하다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내년 2월 28일까지 광산구 월곡 고려인문화관에서 열린다.

고려인문화관,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획전…2024년 2월까지 1923년 블라디보스크서 3·1정신 계승 발행…‘한글문학’ 꽃피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3월 1일 3·1운동 제4주년을 기념해 블라디보스크에서 ‘삼월일일’이라는 신문이 발간됐다. 1919년 민족독립을 기치로 온 겨레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던 기미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만 4년이 되던 날이었다.

3·1운동을 계승한 이 신문의 제호는 ‘삼월일일’이었다. 지역만리 타국에서 민족의 독립을 학수고대하던 고려인들은 그렇게 신문 창간을 토대로 독립운동의 횃불을 다시금 높이 들었다.

당시 창간호는 ‘삼일운동략사’와 ‘독립선언서’를 게재해 거족적인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삼일운동략사’에 실린 글이다. “원수의 강제합병을 당한 후로 한국민중의 광복운동은 잃죽 쉴 날이 없었다. 일본군벌제벌의 횡포와 락탈은 갈수록 깊어졌다.”

이밖에 한 지사는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나섰다. “가 일본 경찰의 칼에 팔이 잘리자 다른 손으로 만세를 외쳤던 한 여학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삼월일일’은 제호에 걸맞게 매년 3월 1일이면 3·1운동 관련 기사와 논설을 게재했다. 이후 신문은 제4호부터 ‘선봉’으로 제호가 바뀌었으며 1938년 ‘레닌기치’, 1991년 ‘고려일보’로 변경됐다.

‘고려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광산구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에서 기획전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3·1절 104주년을 맞아 개최되고 있는 이번 기획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전시장에는 고려일보 1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25년 동안 고려일보 기자로 활동한 바 있는 고려인문화관 김병학 관장이 수집한 자료들이다.

김 관장은 지난 1991년 광주일보가 카자흐스탄에 세운 ‘우스토베 광주한글학교’에서 교사로 동포들의 후손들을 가르쳤다. 귀국 후 그는 옛 소련에 의해 연해주에서 척박한 중앙아시아 땅으로 강제이주(1930-1937년) 됐던 고려인 역사가 담긴 기록물 1만

2000점을 수집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장에는 당시 신문 자료를 비롯해 신문사 직원들, 기록 사진, 당시 기사, 활자본 등이 전시돼 있다.

연대별로 전시된 자료들은 고려일보의 역사를 넘어 우리의 글과 모국어를 지켜나가기 위한 눈물겨운 흔적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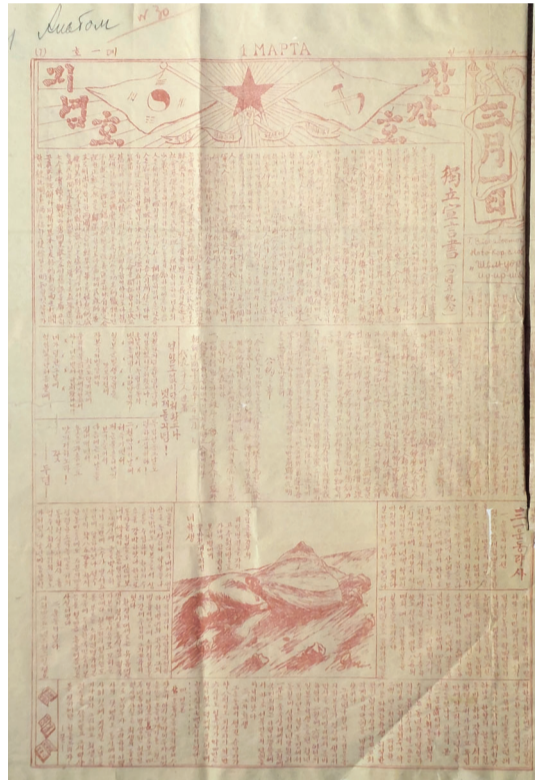
고려일보는 당시 시대와 맞물려 몇 차례의 변화와 곡절을 겪는다. 1923년부터 1937년까지는 계몽의 횃불을 들었던 시기다. 당시 ‘선봉’이라는 제호로 발행된 신문은 대중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 사치를 절제하고 주민들을 계몽해나갔다. 또한 동포작가들의 한글 작품을 널리 소개했으며 우리말의 올바른 표기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어문학자들을 후원했다.

그러나 ‘선봉’은 1937년 9월 12일 1644호를 끝으로 폐간된다. 신문사 간부들도 모두 체포돼 수감됐다. 특히 농업부장 한동훈만 살아남아 강제 이주 열차를 탔지만, 그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폐간된 신문을 복간하려 노력하다 체포돼 목숨을 잃고 만다.

그러나 독립의 열의만큼 그것을 지면에 담아내기 위한 신문에 대한 집착 또한 버릴 수 없었다. 뜻있는 언론인들의 헌신으로 1938년 5월 15일 카자흐스탄에서 ‘선봉’을 기반으로 ‘레닌기치’가 창간되기에 이른 바, 타블로이드판 4면의 신문이었지만, 고려인들은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모국어 신문을 위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고려인들은 소련연방에서 가치있게 살아가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으며 그 가운데 출판 관련 일은 중요한 임무였다. 1954년 1월 1일부터는 발행부수 7000부, 주 5회를 발행했으며 지면 확대와 함께 ‘문예페이지’란이 활성화되면서 한글문학이 점차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까지 신문에는 기존의 1세대 작가들과 신에 작가들의 참여로 다양한 작품이 실렸다. 1958-1990년에 출간된 한글문학 단행본만 15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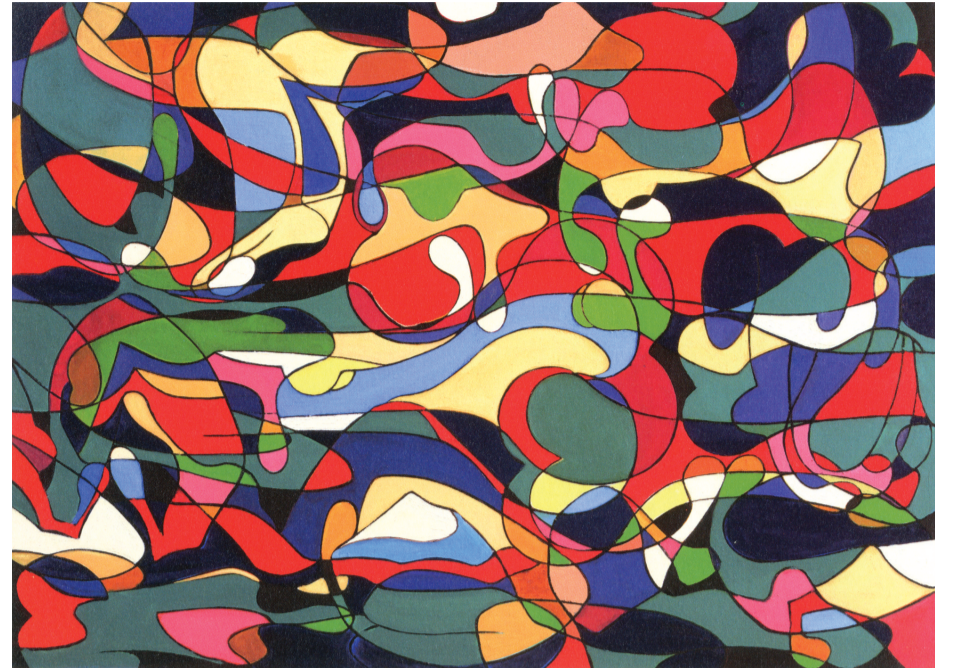
창간호 ‘삼월일일’

신문은 1991년 새해 벽두부터 ‘고려일보’로 제호가 바뀌고 더 이상 당국의 기관지가 아닌 자유신문임을 선언했다. 국가 지원금을 거절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정신으로 바른 신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그해 말 소련 붕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차례 폐간 위기를 겪었지만 신문사는 남은 기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2000년대를 맞게 된다.

그처럼 고려일보는 한 세기를 고려인과 동고동락하며 한 세기를 이어왔다. 소비에트화와 러시아화라는 모진 풍파에서도 모국어를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김병학 관장은 “모국어와 한글문학으로 민족절을 계승하려는 고려인 선각자들의 의지는 모국어 활자에 100년의 수명을 불어넣었다”며 “다행히 지난 30여 년간 여러 후배 언론인과 기자들이 나타나 선배 세대의 뜻을 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가고 있어 고려인 언론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만인보 91’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다’

김필수 초대전, 18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올해 일흔 다섯 노 작가의 인생은 농사와 그림으로 갈무리된다. 지금도 화순 과수원에서 감나무를 키우는 그는 시간을 야겨 그림을 그리며 삶의 위안을 얻는다.

40대 초반 사별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생의 부침을 겪었을 때 그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림’을 통해 인생의 전환을 맞았다.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독학자’로서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습면의 지지를 굽히지 않고 화업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갔다.

김필수 작가 초대전이 오는 18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관선재에서 열린다.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추상적 느낌을 도입한 인물 군상 시리즈와 누드크로키 작품 등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인체의 순간의 움직임 포착하는 크로키는 그가 일과처럼 꾸준히 해온 작업이다. 전시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크로키 작품이 나왔다. 부드러운 선의 느낌을 만나는 연필 데생과 함께 대나무로 만든 펜으로 화선지 위에 한번에 그려나간 즉흥화는 순간의 물임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회화 작품들은 크로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여러 포즈들이 서로 겹치면서 새로운 조형미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다채로운 색감을 입혀 개성있는 화면을 조성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았던 그는 ‘작업을 마치고’ 시리즈의 굴절된 인물 이미지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호명했다.

전시작 중 ‘만인보’ 시리즈는 그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작업한 연작이다. 특히 이 시리즈는 그의 작품이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수많은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되, 구체적인 이미지를 생략한 채 겹치고 얽힌 곡선의 형태를 통해 함께 어우러짐을 표현했다. 또 황토색을 주조로 삼았던 데서 벗어나 화면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강렬한 색감을 도입했다. 그는 “비구상이 어렵기는 하지만 잠재의식을 끌어낸다는 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했다.

농사꾼에게 땅과 물과 바람은 귀한 존재다. 이어지는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대지를 보며 그는 ‘메마른 땅’을 모티브로 한 신작을 구상중이다. 그는 “창의성과 자유스러움, 자연스러움은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마음을 나누는 벗으로 함께하는 장지환 화백과 2인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상해국제아트페어 등 250여회 그룹전에 참여했다. 무등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한울회, 황토드림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베토벤·브람스…조민정 피아노 독주회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조민정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해 귀국 독주회에 이은 두번째 리사이틀이다.

조 씨는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를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의 곡으로 꾸렸다.

베토벤의 32개 소나타 중 그가 선택한 작품은 베토벤이 26세에 작곡한 초기 작품 ‘피아노 소나타 6번 F장조 Op.10’다.

브람스 곡으로는 초창기 피아노곡과 말기 피아노곡을 선정, 작품 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말년의 피아노 독주곡으로 작곡가가 직접 ‘고뇌의 자장가’라고 칭한 ‘세계의 인터메조 Op.117’와 초기의 피아노곡인 ‘스케르초 Op.4’를 연주한다.

피날레 곡은 슈베르트의 소나타다. 19번, 21번과 함께 슈베르트의 후기 소나타로 불리는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D.959’는 슈베르트 특유의 귀에 감기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4악장으로 구성된 작품 중 특히 애수 락 선율의 2악장은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마음을 울린다.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한 조 씨는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거쳐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에 최고점수로 입학한 후 졸업했으며 전문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독일 유학중 프란츠 리스트 센터 국제 피



피아니스트 조민정

아노 콩쿠르 2위에 입상하는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대학 재학시절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다. 귀국 후에는 지난해 금호상지회로 골드필요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다.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예비학교 강사를 지낸 그는 현재 전남대, 계원예술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문의 010-6297-407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G.MAP 미디어아트 창·제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이 올해 첫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아트 분야 창작자와 연구자를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G.MAP은 미디어아트 전문 창·제작자와 연구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G.MAP 미디어아트 창·제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광주지역 미디어아트 관련 창·제작자 1명, 연구자 1명, 타지역 창·제작자 2명 등 총 4명이며 입주기간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이다. 신청분야는 비디오, 사운드, 키네틱 아트 등 전 장르 융복합 미디어아트다.

지원대상자는 만 39세 미만 출생자로 융복합 미디어아트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제작자·연구자다. 타 지역 지원자에게는 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 숙박시설이 제공된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공용 스튜디오 제공, 창작·연구 지원을 위한 장비 교육 및 실습, 국내 기관 레지던시 네트워크 워크숍, 전문가 매칭 세미나, 창작지원비 등이 제공되며 결과보고전도 개최한다. 접수는 오는 17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마추어 작가들의 열정 ‘그녀들의 수다’

광주시립미술관 목유회 작품전, 24일까지 일곡갤러리

광주시립미술관 목유회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린다.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이 좋아 이젠 앞에 앉은 회원 가운데는 10년 가까이 붓을 잡은 이들도 있다.

아마추어 작가들의 열정과 순수함을 만날 수 있는 목유회 작품전이 오는 24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녀들의 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백경인·강현숙·김득심·조옥희 등 회원 20여명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흐드러지게 핀 맥문동, 푸른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등 꽃과 나무, 사계절의 변화를 만나는 자연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사회 각 분야의 여성들로 구성된 회원들은 중외공원 내 팔각정에 마련된 화실에서 그림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한다. 회원들은 코로나 19로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리는 일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개인 작업을 이어오며 그림에 대한 애정을 놓지않았다.

전시에서는 목유회를 지도하고 있는 강남구 작가의 매화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득심 회원 작품